

최근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방호경 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bassgu@kiep.go.kr, Tel: 3460-1126)

홍이경 국제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ykhong@kiep.go.kr, Tel: 3460-1041)

차 례 ● ● ●

1. 배경
2. 최근 북·중 무역의 현황과 주요 특징
3. 중국의 대북 수출입 추이 분해
4. 요약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중 무역이 물량과 단가 변화(내연적 요인), 교역품목 다변화(외연적 요인) 등 어떤 요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 ▶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음.
 - 첫째, 중국의 대북 무역수지는 2013년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규모는 전년에 비해 2.4억 달러 감소한 7.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중국의 대북 수출품목은 주로 중간재로 분류되는 반제품(섬유제품, 음식료품 등)과 원료인 반면, 수입품목은 원료(석탄광업, 금속광업 등)와 소비재(의복모피제품, 음식료품, 섬유제품 등)로 나타났음.
 - 둘째, 최근 중국의 대북 수출규모 변화는 주로 내연적 요인(물량과 가격 변화)에 기인하나, 제품단가보다는 물량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음.
 - 셋째,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도 외연적 요인보다 내연적 요인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을 보였으나, 중국의 대북 수출과 같이 현저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음. 한편 중국의 대북 수입물량은 늘어난 반면 단가 변화에 따른 수입금액은 감소하였음.
 - 넷째, 지난 21년 동안 중국의 대북 수입증가는 내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왔음. 한편 중국의 대북 수입보다 빠른 증가세를 시현한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수입증가가 주로 외연적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보다 낮은 증가세를 시현한 미얀마의 경우 북한과 같이 내연적 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
- ▶ 종합해보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무역은 품목의 다양성에 의한 교역 증대보다 기존 소수 품목의 물량 및 단가 변화에 좌우되고 있음.
 - 특히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의 교역이 제품의 다양성보다는 일부 소수품목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대외 무역을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전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 북한은 여타 국가와의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선 다각화와 외국인투자 확대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어나가야 하며, 한국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대외무역을 외연적 요인에 의해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배경

■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대상국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2.7%에서 2013년 89.1%로 크게 상승하였음(그림 2 참고).

■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무역 다각화’를 강조하며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를 보여 왔음.

■ 그러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우려 등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중국에 대한 절대적인 무역의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최근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시진핑 정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지리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바라고 있음.
 - 시진핑은 북한은 ‘정부와 정부의 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고 표현하며 북·중 관계는 정부가 바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지속적인 관계라고 강조하는 등 최근 북·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음.
 - 또한 시진핑은 미국은 중국에게 있어 ‘이익공동체’이지만 북한은 중국과 ‘운명공동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중 무역이 물량·단가 변화, 교역 품목 다변화 등 어떤 요인에 의해 신장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2. 최근 북·중 무역의 현황과 주요 특징

■ 2013년 북한의 대중 수출 및 수입규모는 각각 전년대비 17.2% 및 5.4% 증가한 29.1억 달러 및 36.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동안 북·중 무역은 북한의 대중 수입이 수출을 상회해 왔는데, 2013년에도 이러한 특징이 지속되었음.
- 다만, 2013년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대중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2012년에 비해 2.4억 달러 감소한 7.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림 1. 북·중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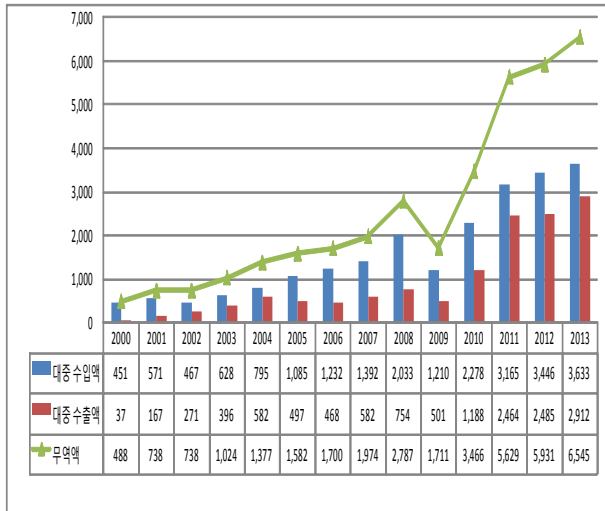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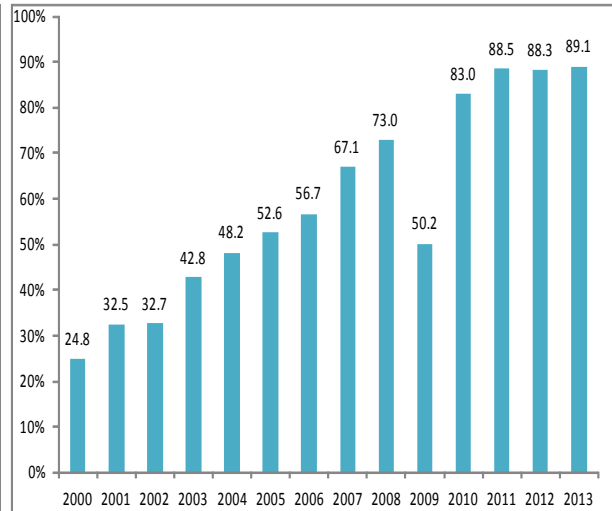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대외무역대비 중국비중 추이

(단위: %)



주: 1. 2009년은 통계 일부 누락.

2.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남북교역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www.kita.net); KOTRA, 『2013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참고.

■ 2013년 중 중국의 주요 대북 수출산업은 원유·천연가스 채굴업(16.5%), 섬유제품 제조업(14.6%), 음식료품 제조업(9.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6.6%)의 순으로 나타남.

- 원유·천연가스 채굴업은 분석기간 중 중국의 대북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섬유제품 제조업의 대북 수출비중은 1992년에 6.6%를 보인 이후 크게 상승하여 2013년 들어서는 원유 다음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부상하였음.
- 식료품 제조업은 연도에 따라 등락을 보였으나 꾸준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표 1. 중국 대북 수출의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산업명	1992년	2002년	2013년
농축산업	17.8	7.2	3.0
임업, 벌목업	0.0	0.0	0.0
어로, 양식업	0.1	0.0	0.0
석탄 광업	11.5	2.0	0.7
원유·천연가스 채굴업	25.5	16.4	16.5
금속 광업	0.3	0.1	0.0
기타 광업	0.6	0.5	0.1
음식료품 제조업	8.9	12.1	9.8
담배 제조업	0.4	1.8	0.8
섬유제품 제조업	6.6	7.1	14.6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1	1.0	2.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8	0.6	1.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1	0.2	0.2

표 1. 계속

산업명	1992년	2002년	2013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	1.5	1.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1	0.1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5	6.6	3.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0	10.2	6.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	5.8	5.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3	1.9	2.0
1차 금속 제조업	2.5	6.8	3.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8	1.2	3.1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	5.5	6.6
사무용 기계제조업	0.0	0.6	1.4
전자기계 및 장비제조업	0.6	3.0	3.3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	2.6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	0.6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1.3	5.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	0.9	1.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0.3	1.0	2.2
기타	2.7	1.2	0.8

주: UN에서 제공하는 HS 및 ISIC Rev. 3 연계코드를 이용하여 HS 품목분류 코드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로 전환하였음.

자료: UNCTAD 데이터베이스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www.kita.net)를 이용하여 계산

■ 반면, 중국의 대북수입은 2013년 중 석탄 광업이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9%), 금속광업(14.2%), 1차 금속 제조업(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산업별 수입비중이 큰 등락을 보였는데 이는 북한의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1992년에는 1차 금속 제조업(47.0%)이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2002년에는 어로, 양식업(40.9%), 2013년에 들어서는 석탄 광업(47.4%)의 비중이 각각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표 2. 중국 대북 수입의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1992년	2002년	2013년
농축산업	4.5	7.1	1.7
임업, 벌목업	3.1	1.4	0.1
어로, 양식업	1.3	40.9	0.5
석탄 광업	11.3	2.7	47.4
금속 광업	10.8	3.1	14.2
기타 광업	0.0	0.6	1.3
음식료품 제조업	7.5	10.7	3.6
담배 제조업	-	-	0.0
섬유제품 제조업	0.3	0.8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4	15.0	18.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0	1.7	0.2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4	0.0	0.0

표 2. 계속

	1992년	2002년	2013년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1	0.0	0.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0.6	1.4	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7	0.2	0.4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0.2	0.1	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	0.0	0.0
1차 금속 제조업	47.0	8.5	7.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2	0.0	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4	0.2	0.0
사무용 기계 제조업	0.0	0.0	0.0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0.3	0.0	1.4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	2.0	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	0.0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5	0.0	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1	0.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0.0	0.0	0.1
기타	0.8	3.2	0.8

주: UN에서 제공하는 HS 및 ISIC Rev. 3 연계코드를 이용하여 HS 품목분류 코드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로 전환하였음.
 자료: UNCTAD 데이터베이스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www.kita.net)를 이용하여 계산.

■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을 생산단계별로 보면, 2013년 중 중간재로 분류되는 반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38.7%)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원료(19.6%), 소비재(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부표 1 참고).

- 반제품은 주로 섬유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에 속하는 품목으로 구성됨.

■ 중국의 대북 수입품목을 생산단계별로 보면 원료(63.7%)와 소비재(25.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부표 2 참고).

- 원료는 주로 석탄 광업과 금속 광업에 속하는 품목이고, 소비재는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에 속하는 품목으로 구성됨.

■ 이처럼 북·중 무역은 일부 산업과 특정 생산단계에 교역품목이 집중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서는 북·중 무역이 물량 및 단가 변화, 교역품목 다변화 등 어떤 요인에 의해 확대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음.

- 이에 다음에서는 북·중 무역의 변동추이를 분해하여 최근의 무역증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3. 중국의 대북 수출입 추이 분해

■ 중국의 대북 수출입 추이를 내연적 요인(Intensive margins)과 외연적 요인(Extensive margins)으로 분해하여 그 변동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내연적 요인은 양국간 교역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 변화에 의해 수출금액이 변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연적 요인은 수출입 품목 수 변화에 의해 수출금액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냄.¹⁾
- 따라서 내연적 요인은 물량효과(quantity effect)와 가격효과(price effect), 외연적 요인은 품목의 진입(new products) 및 퇴출효과(exiting effects)로 각각 분해할 수 있음.

■ 본고는 Haddad, Harrison and Hausman(2011)의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의 변화요인을 물량효과, 가격효과, 진입 및 퇴출효과로 각각 분해하고자 함.

- 이를 위한 구체적 산식은 다음과 같음.²⁾

$$\frac{dv_t}{v_{t-1}} = \frac{\sum_{c=1}^C \frac{p_t^c + p_{t-1}^c}{2} \Delta q_t^c}{v_{t-1}} + \frac{\sum_{c=1}^C \Delta p_t^c \frac{q_t^c + q_{t-1}^c}{2}}{v_{t-1}} + \frac{\sum_{n=1}^N p_t^n q_t^n}{v_{t-1}} - \frac{\sum_{x=1}^X p_{t-1}^x q_{t-1}^x}{v_{t-1}}$$

- 단, $\frac{dv_t}{v_{t-1}}$ 는 t-1기에서 t기 동안 수출 또는 수입 증가율을 나타내고, c는 t-1기 및 t기에 지속적으로 거래된 품목, n은 t기에만 거래된 품목, x는 t-1기에만 거래된 품목을 각각 의미함. 한편, p와 q는 품목의 가격 및 물량을 나타냄.
- 수출입 증가율은 물량 및 가격효과와 신규품목 진입효과의 증가율을 합한 수치에 퇴출품목의 증가율을 뺀 것으로 구성됨.
- 한편 본고는 중국의 대북 수출입을 실질치로 변환시키기 위해 Oxford Economics의 Global Economic Databank에서 제공하는 중국의 수출입 디플레이터(2005=100)를 이용하였으며, 물량은 중량 기준을 사용하였음.³⁾

1) 이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Chaney(2008), Bernard, Jensen, Redding, and Schott(2009), Haddad, Harrison and Hausman(2011) 등을 참고

2) 산식의 구체적 도출과정은 Haddad, Harrison and Hausman(2011) 참고

3) 무역금액 및 중량자료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음. 소수품목의 경우 중량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들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였음.

■ [표 3]은 앞의 산식에 근거하여 2012년 중국의 전년대비 대북 수출입 변화를 분해한 결과임.

-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국의 대북 무역통계는 2013년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나, 수출 및 수입 물량이 중량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로 제공되고 있어 품목 단위당 가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는 2012년까지 품목별 수출과 수입물량을 중량 단위로 제공하고 있음.

가. 중국의 대북 수출추이의 분해

■ 2012년 중국의 대북 수출품목 수(HS 6단위 기준)는 2011년에 비해 20개 감소한 2,922개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 새롭게 진입한 품목(진입효과)이 326개인 반면, 더 이상 수출되지 않는 품목(퇴출효과)은 346개임.

■ (내연적 요인) 2012년에 중국의 대북 수출은 기존 수출품목의 물량 확대와 함께 품목 단위당 가격 상승이 모두 기여하였으나 가격보다는 물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물량 증가 및 품목단위당 가격 상승효과는 각각 132.8백만 달러와 51.4백만 달러를 보였으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5.2%와 2.0% 확대된 것임.

■ (외연적 요인) 2012년 중국의 대북 수출에서 퇴출된 품목(346개)이 새로 진입한 품목(326개)보다 많았으나 수출금액 변화에서는 진입효과가 퇴출효과를 압도하였음(표 3 참고).

- 2012년에 새로 진입한 품목(진입효과)의 수출금액은 51.7백만 달러인 반면, 퇴출품목은 38.5백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3.2백만 달러의 순진입 효과가 발생하였음.

■ 결국 최근 중국의 대북 수출 변화는 내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2년 중국의 대북 수출추이를 절대규모로 보면 내연적 요인에 의해 총 227.3백만 달러(물량효과+가격효과+미분류의 절대치)가 늘어난 반면, 외연적 요인은 90.2백만 달러(진입효과+퇴출효과의 절대치)에 그쳤음.

■ 그 결과 2012년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는데, 이를 분해해보면 물량효과가 5.2%, 진입효과와 가격효과가 각각 2.0%, 퇴출효과 -1.5%로 나타남.

나. 중국의 대북 수입추이의 분해

■ 2012년에 중국의 대북 수입품목 수는 593개로, 이는 2011년에 비해 85개가 늘어났음.

-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 새롭게 수출된 품목(진입효과)은 230개인 반면, 2011년에 퇴출된 품목은 145개로 나타나 진입효과가 퇴출효과를 압도하였음.

■ (내연적 요인) 중국의 대북 수입증가는 물량 확대에 의해 달성되었고, 가격효과의 경우 제품 단위당 가격인하로 대북 수입증가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3 참고).

- 물량확대에 따른 수입증가 규모는 28.3백만 달러인 반면, 제품단위당 가격변화에 따른 수입감소 금액은 9.9백만 달러였음.

○ 제품단위당 가격이 인하된 품목은 주로 의복 및 모피제품, 섬유제품과 수산업 등에 속하였음.

■ (외연적 요인)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 2012년에 새로 진입한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1차 금속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기타 광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중 진입효과에 따른 중국의 대북 수입 변화금액은 23.9백만 달러였음(표 4 참고).

표 3. 2012년 중 중국 대북 수출입 추이의 분해

(단위: 백만 달러, %, 전년대비)

구분		수출			수입		
		품목 수	수출금액 변동	증감률	품목 수	수입금액 변동	증감률
내연적 요인	물량효과	2,068	132.8	5.2	347	28.3	1.6
	가격효과		51.4	2.0		-9.9	-0.6
	미분류	528	43.1	1.7	16	0.4	0.0
외연적 요인	진입효과	326	51.7	2.0	230	23.9	1.4
	퇴출효과	346	-38.5	-1.5	145	-9.6	-0.5
계		2,922(▼20)	240.5	9.4(11.6)	593(▲85)	33.1	1.9(1.1)

주: 1. 실질치.

2. 증감률의 () 안은 명목수출금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임.

3. 미분류는 연도별 동일품목의 물량단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중량 이외의 물량이 제공되는 경우임.

자료: UNCTA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표 4. 2012년 중 중국 대북 수입의 진입 산업 및 품목 수

(단위: 품목 수, 달러)

순위	산업명	품목 수	수입금액
1	1차 금속 제조업	21	13,379,563
2	음식료품제조업	9	2,020,423
3	기타 광업	8	1,827,737
4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	1,700,047
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1,550,791
6	농축산업	1	991,214
7	기타	32	695,067
8	담배 제조업	10	536,404
9	섬유제품 제조업	11	152,290
1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0	148,665
1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141,261
12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2	133,511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2	122,547
14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	117,050
1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8	111,127
16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9	90,860
17	금속광업	7	52,491
18	사무용 기계 제조업	24	40,322
19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	38,419
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0	19,602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	13,657
2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3,747
2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3	3,613
24	오락 문화 스포츠업	31	2,169
2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	2,148
26	어로, 양식 및 관련 서비스업	3	1,900
2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4	779
2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9	433
합 계		230	23,897,839

주: 순위는 수입금액 기준.

자료: UNCTA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 특히 최근 중국의 대북 수입 변화는 외연적 요인보다 내연적 요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북 수출과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2012년 중 중국의 대북 수입금액 변화를 절대규모로 보면 내연적 요인은 총 386백만 달러(물량효과+가격효과+미분류의 절대치), 외연적 요인은 33.5백만 달러(진입효과+퇴출효과의 절대치)를 기록하였음.
- 그 결과, 대북 수출은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는데, 이를 분해해 보면 물량효과가 1.6%, 진입효과 1.4%, 가격효과 및 퇴출효과는 각각 -0.6% 및 -0.5%로 나타났음.

- 북한의 대외교역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동안 북·중 무역이 단기적으로는 주로 내연적 요인에 좌우되어 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다. 1992~2012년 중 중국의 대북 수입규모 변화의 분해

- 1992~2012년 중 중국의 대북 수입금액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음.

- 수입변화 요인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1992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북 수입보다 규모가 작은 동아시아 국가(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음.
 - 중국의 대북 수입규모가 1일 경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1992년에 0.02, 0.84, 0.47로 나타났으나, 2012년에 들어서는 각각 0.31, 0.52, 6.49로 크게 확대되었음. 1992~2012년 중 베트남과 라오스는 북한보다 빠른 증가세를 시현한 반면, 미얀마는 상대적으로 느린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중국의 對베트남 수입규모는 1992년에 북한의 0.5배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2년에 들어서는 약 6.5배로 대폭 확대되었음.⁴⁾

- (내연적 요인) 1992~2012년 중 중국의 대북 수입증가도 주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효과보다 물량 확대가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물량확대에 따른 수입금액 변화는 9.1억 달러인데 비해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금액 변화는 2.4억 달러 확대되는 데 그쳤음.

- (외연적 요인) 반면, 새로운 품목의 진입효과에 따른 수입금액 변화는 5.2억 달러를 기록하여 내연적 요인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경우 내연적 요인에 따른 수입금액 변화가 1,165.6백만 달러(물량효과+가격효과+미분류)로 진입효과(5.2억 달러)보다 큰 특징을 보임.

- 이처럼 중국의 대북 수입은 1992~2012년 중 품목 수에서는 외연적 요인이 내연적 요인을 압도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에서는 반대로 내연적 요인이 외연적 요인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4)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 결론적으로 북한보다 무역이 빠르게 증가한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수입증가가 주로 외연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북한보다 낮은 증가세를 시현한 미얀마의 경우 북한과 같이 내연적 요인에 의해 주로 수입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표 5 참고).

표 5. 1992~2012년 중 중국의 대북·베트남·라오스·미얀마 수입 증가요인 비교

(단위: 백만 달러, 1992년 대비 증감률)

구분		북한			베트남		
		품목 수	수입액 변동	증감률	품목 수	수입액 변동	증감률
내연적 요인	물량효과	54	913.5	357.8	63	2,173.6	1,820.4
	가격효과		242.6	95.0		613.0	513.4
	미분류	18	9.5	3.8	20	417.7	324.5
외연적 요인	진입효과	521	522.2	204.5	1,562	8,311.0	6,960.5
	퇴출효과	162	-151.4	-59.3	46	-15.1	12.6
계		593(▲359)	1,536.4	601.8(1,509.8)	1,645(▲1,516)	11,500.2	9,631.4(2,221.6)
구분		라오스			미얀마		
		품목 수	수입액 변동	증감률	품목 수	수입액 변동	증감률
내연적 요인	물량효과	10	304.5	5,039.4	51	532.9	247.2
	가격효과		-122.9	-2,033.3		-216.7	-100.5
	미분류	1	0.5	6.6	11	147.7	68.5
외연적 요인	진입효과	129	378.8	6,269.1	204	307.8	142.8
	퇴출효과	52	-2.9	-48.5	105	-57.8	-26.8
계		192(▲77)	558.0	9,233.2(21,251.4)	371(▲99)	713.90	330.1(900.0)

주: 1. 실질치.

2. 품목 수의 () 안은 1992년 대비 수출 품목 수의 변화.

3. 증감률의 () 안은 명목수출금액의 1992년 대비 증감률.

4. 미분류는 연도별 동일품목의 물량단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중량 이외의 물량이 제공되는 경우임.

자료: UNCTA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4. 요약 및 시사점

- 본고는 최근 북·중 무역의 추이를 무역구조 분석과 함께 최근 국제무역 학계에서 논의가 활발한 내연적 및 외연적 요인의 개념을 활용하여 그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음.

- 첫째, 중국의 대북 무역수지는 2013년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2.4억 달러 축소되었음.

- 둘째, 2013년 중 중국의 대북 수출품목은 주로 중간재로 분류되는 반제품(섬유제품, 음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과 원유 등의 원료인 반면, 대북 수입품목은 원료(석탄광업, 금속광업 등)와 소비재(의복 및 모피제품, 음식료품, 섬유제품 등)인 것으로 분석됨.
- 셋째, 최근 중국의 대북 수출금액 변화는 주로 내연적 요인(수출물량과 품목단위당 가격 상승)에 기인하나, 물량 효과가 제품가격 효과를 압도한 것으로 분석됨.
- 넷째, 중국의 대북 수입추이에서도 내연적 요인의 기여도가 우세한 특징을 보였으나, 대북 수출과 같이 현저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음. 다만 중국의 대북 수입물량은 늘어난 반면 단가 변화에 따른 수입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1992~2012년 중에도 중국의 대북 수입증가는 내연적 요인이 큰 기여를 하였음. 특히 중국의 대북 수입보다 빠른 증가세를 시현한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수입증가가 주로 외연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북한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인 미얀마의 경우 북한과 같이 내연적 요인의 기여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볼 때,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무역은 품목의 다양성에 의한 교역 증대보다 기존 소수품목의 물량 및 단가에 주로 좌우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내연적 요인에 좌우되는 품목도 대부분 북한의 지하자원과 관련되어 있어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나 국제 원자재가격 등 외부상황에 매우 민감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의 교역이 그동안 제품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부 소수품목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대외무역을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교량건설, 통상특구 설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북·중 무역의 60% 이상이 이루어지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압록강대교(조중우의교)를 대체할 신 압록강대교가 올해 8월에 개통될 예정이며, 신압록강대교와의 연결지점에 새로운 도로통상구 건설도 추진 중임. 이밖에 지린성 훈춘시 취안허 통상구에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신두만강대교도 건설이 예정되어 있음.

■ 향후 북한은 여타 국가와의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선 다각화와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무역의 다각화'를 강조하며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음.

- 한국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대외무역을 외연적 요인에 의해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부표 1. 중국 대북 수출의 생산단계별 비중 추이

(단위: %)

		1992년	2002년	2012년	2013년
중간재	부품	2.8	3.1	4.3	4.4
	반제품	19.6	36.2	35.7	38.7
최종재	자본재	3.6	8.2	17.9	15.5
	소비재	14.5	19.9	15.4	18.5
원료		55.4	25.5	22.1	19.6
미분류		4.1	7.2	4.6	3.2

주: UN에서 제공하는 HS 및 BEC 연계코드를 이용하여 HS 품목분류 코드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로 전환하였음.
자료: UNCTAD 데이터베이스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www.kita.net)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2. 중국 대북 수입의 생산단계별 비중 추이

(단위: %)

		1992년	2002년	2012년	2013년
중간재	부품	1.2	2.0	0.5	0.1
	반제품	57.2	11.3	10.6	9.3
최종재	자본재	0.8	0.2	0.7	0.6
	소비재	11.4	70.2	22.7	25.7
원료		28.9	14.8	64.8	63.7
미분류		0.6	1.4	0.7	0.5

주: UN에서 제공하는 HS 및 BEC 연계코드를 이용하여 HS 품목분류 코드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로 전환하였음.
자료: UNCTAD 데이터베이스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www.kita.net)를 이용하여 계산. KIEP